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EUROPE

유럽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폴란드의 전자상거래 게이트웨이 부상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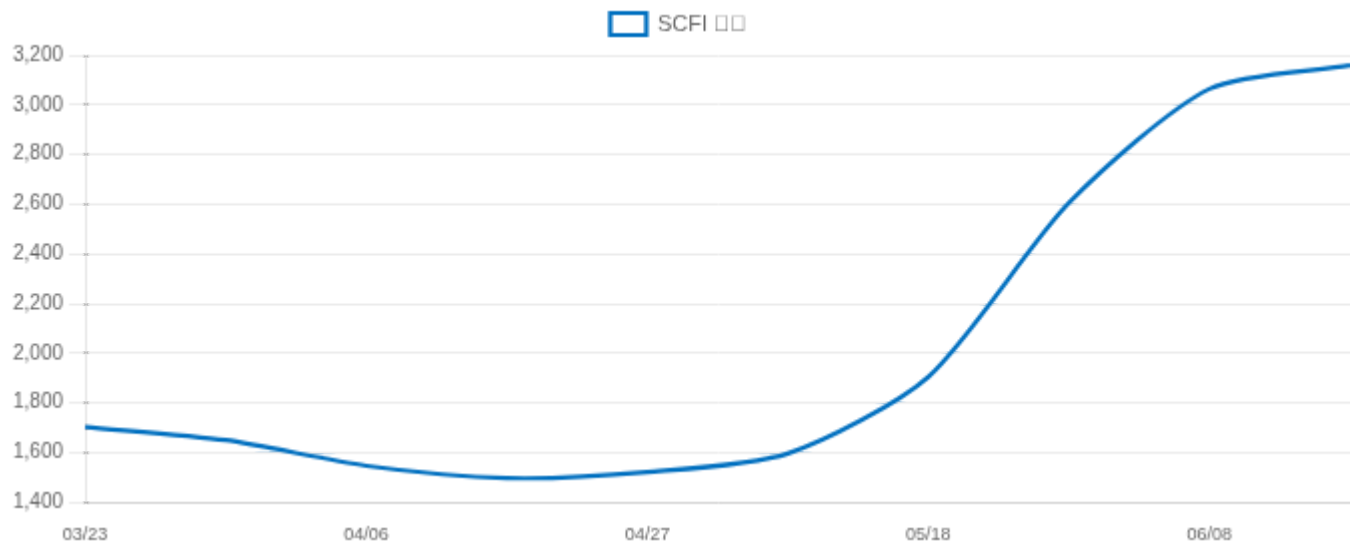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유럽 권역의 핵심 흐름은 폴란드가 전자상거래 물류의 핵심 게이트웨이로 부상한 점입니다. 폴란드는 중국 업체 뿐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물류 투자를 유치하며 유럽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물류 인프라 재편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투자 유치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유럽 물류 허브 경쟁에서 폴란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유럽	3,158 \$/TEU	06/15	+3.1%	+65.8%
KCCI 북유럽	4,566 \$/FEU	06/22	+14.6%	+60.9%
KCCI 지중해	5,768 \$/FEU	06/22	+9.8%	+39.6%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6/15

폴란드의 전자상거래 게이트웨이 부상

폴란드가 유럽 전자상거래 물류의 핵심 게이트웨이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의 물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폴란드는 유럽 최대 물류 허브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핵심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 LOT Polish Airlines 화물 총책임자 Michał Grochowski에 따르면 폴란드의 매력은 소비 수요를 넘어 물류 생태계 전반에 걸친 투자와 인프라에 기반함.

폴란드의 강점은 물류 인력 교육과 창고·유통 인프라에 있음. 특히 창고 물류에 특화된 고급 인력과 분배 네트워크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 센터 입지를 유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서유럽 전통 물류 중심지보다 폴란드가 물류 운영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레이어가 폴란드로 몰려들고 있음.

- 폴란드는 유럽 주요 물류 허브로 급부상 중
- 물류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창고 물류에 특화됨
- 서유럽 전통 물류 중심지보다 운영 환경이 더 우호적으로 평가됨
- 중국 외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의 투자 유치

전망

폴란드는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투자와 교육 시스템 강화로 유럽 전자상거래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서유럽 물류 비용 상승과 맞물려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의 물류 센터가 폴란드로 이전할 가능성 있음.

시사점

선사·항만 — 폴란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 및 연계 운송 인프라 확충 필요

화주 — 폴란드 물류 센터 활용 시 유럽 내 배송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가능

포워드 — 폴란드 내 창고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물류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